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문화신문 5면

복지건설위원회 현장활동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3일 오전 11시 수유종합사회복지관(강북구 4.19로 23길 37-6 소재)를 방문하여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둘러보았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에 최근 어린이집 유아 폭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 1개소를 예고 없이 방문하였다.

이 날 현장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김도연,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과 구청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도운 복지관장님으로부터 복지관 설립목적, 시설규모, 운영현황, 경로식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김도연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경로식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복지관장의 답변을 통



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복지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복지관 관련 의정활동의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김도연 위원장과 의원들은 복지관 4층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무상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유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하였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오후 1시 30분 강북구청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최근 유아 폭행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편집위원회 / 안진환 기자